칼바람 부나… 광주시 산하 32개 공공기관 조직진단

市, 용역 수행 기관 다음달 우선협상자 선정…경영 등 전반 점검
강 시장, 강도 높은 혁신 예고…내년 4월 후 구조조정 논의 '주목'

광주시가 산하 3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쇄신 작업에 돌입했다.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공공기관 조직진단, 기능 효율화 용역을 수행할 기관 모집을 공고했다. 다음 달 중순께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면 해당 기관은 월말께 계약 후 용역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용역 기간은 6개월, 대상 기관은 32곳이다.

도시공사·도시철도공사·김대중컨벤션센터·환경공단 등 공기업법이 적용되는 공사·공단 4곳, 광주전남연구원·테크노파크 등 출연 기관 19곳, 5·18기념재단·체육회 등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 등 형태의 기타 기관 9곳이다. 용역에서는 기관별로 인사·재정 등 경영 전반과 함께 조직 문화를 진단하고 통합 매뉴얼 실태도 점검한다.

특히 유사·중복 기능 조정 의견도 제시할 것으로 보여 용역이 끝나는 내년 4월 이후 통폐합 등 공공기관 구조 조정 논의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시는 또 오는 28일까지 용역업체의 제안서 평가위원도 공개 모집한다.

앞서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달 30일 민선 8기 첫 공공기관장 회의에서 강도 높은 혁신을 예고하고 나섰다.

강 시장은 "그간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에 대한 질타와 공공성, 효율성, 투명성 등에 대해 시민들로부터 지속적인 개선 요구가 있었음에도 공공기관의 노력이 시민이 체감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았다"면서 "높아진 시민들의 수요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공공기관 설립 취지를 되돌아보고 '변화의 길'을 찾아야 한다. 일을 주면 받고, 기관에서 사업을 올리면 추진하던 수동적 관계를 벗고, 시정운영의 협력적 동반자로서 새로운 관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당시 공공기관 '창의와 변화 5대 방침'으로 ▲기관 간 중복·유사 기능 재조정과 협업사업 강화 ▲관행적인 위·수탁 사업 중 일부의 경쟁 방식 전환 ▲인사·보수·회계 등 공통 표준지침 마련 ▲인사 검증 시스템 강화와 윤리규정 정비 ▲확실한 인센티브 제도화를 제시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무등산 지질공원 활성화' 위해 4개 지자체 맞손

19일 오후 광주시 동구 전통문화관에서 열린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 재인증 현장실사단 환영 리셉션에 참석한 이병노 담양군수(왼쪽부터)와 강기정 광주시장, 이란 키미야 사닷 아자예비, 베트남 쩐떤빤, 문금주 전남부지사, 박철원 화순부군수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전남도·담양군·화순군 업무협약…지역 상생 협력체계 구축

광주시와 전남도, 담양군, 화순군이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 활성화와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강기정 광주시장, 문금주 전남도 행정부지사, 이병노 담양군수, 박철원 화순부군수는 19일 오후 광주전통문화관에서 열린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 재인증 현장실사단 환영식'에 참석해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무등산권은 앞서 2018년 4월 광주·전남·담양·화순 등 4개 지자체가 공동 협력한다는 점을 크게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받았다.

이번 협약은 지자체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질학적 가치를 갖는 명소와 경관 보호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활성화 ▲지역 상생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는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 지위 유지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의 효율적인 운영 ▲공동협력 협의회 구성 등 3개 분야에 대해 협력하는 내용이 담겼다.

협약에 따라 광주시는 앞으로 협약과 관련된 사항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행정사항 전반을 총괄한다. 전남도는 광주시와 상생발전협력의 동반자로서 협약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담양군과 화순군은 광주시와 전남도와 함께 협약과 관련된 제반 사항 추진에 적극 협력한다.

4개 지자체는 협약 내용의 효율적 추진과 세부 업무 협의를 위해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 공동협력 협의회'를 구성·운영하며, 협의회의 운영 및 통합본부 설립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후 협의회에서 심층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 재인증 현장실사는 유네스코가 파견한 지질공원 전문가인 베트남의 트란반과 이란의 키미아 아자애비 평가위원이 진행 중이며, 20일 광주권역, 21일 화순권역, 22일 담양권역 순으로 현장 점검을 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 에너지신산업 육성 '순항'

'그린수소 에너지 섬 조성' 타당성조사 국비 2억원 확보

전남도가 2050 탄소중립 실현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위해 추진 중인 그린수소 등 에너지신산업 육성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전남도는 19일 "지난 1월 수립한 '전남 수소산업 육성 종합계획'에 포함된 '그린수소 에너지섬 조성'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국비 2억원을 확보해 그린수소 생산기지 조성을 위한 첫 번째 발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수소경제 정책이 기후변화 대응과 청정에너지 사회 진입을 위한 필수 요소로 판단하고 수소산업 육성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산업부 공모사업인 '수전해 시스템 신뢰성 제고를 위한 성능시험센터 구축'에 선정됐다. 2024년까지 국비 153억원을 지원받아 그린수소 핵심기술인 수전해 시스템 생산에 나서게 된다. 수전해 성능시험센터를 기반으로 향후 세계 최초로 수전해 인증센터까지 구축, 전남을 그린수소 생산의 중심지로 만든다는 목표다.

올 1월에는 전남도가 그린수소 메카로 도약하는 청사진을 담은 '전남 수소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 7대 전략 27개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19조346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에 11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전남도의 지속가능한 미래 100년 먹거리를 만들어 낼 '그린수소 에너지 섬 조성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은 해상풍력과 연계한 그린수소 생산기지 조성을 위한 초석이다.

그린수소 에너지섬 조성사업은 8.2GW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을 활용한 잉여 전력, 전남의 비교우위 자원인 섬에 수전해 설비를 구축해 생산하는 것을 사업 취지로 하고 있다. 또 '광양만권 수소산업 융복합 플랫폼 구축사업'은 광양만권의 우수한 철강·석유화학 산업환경 기반을 수소산업 전주기 생태계 조성을 위한 것이다.

산업부에서는 그린수소 생산기지 조성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2023년부터 추진할 계획이며, 전남도는 성공적인 용역수행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할 계획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인프라 확대

道, 보성 장양영농조합법인·영암 ㈜담아 사업자 선정 시설 지원

전남도가 2023년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 사업 대상자로 보성 장양영농조합법인, 영암 농업회사법인 ㈜담아를 선정해 각각 5억원씩을 지원한다.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사업 지원 대상은 친환경 벼 10ha(벼 이외 품목은 2ha) 이상을 재배하는 생산자단체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가공·유통에 필요한 시설 설치비와 장비 구입비 등을 지원한다.

전남도는 지난 7월 말까지 시·군에서 사업희망자를 추천 받아 사업계획 적정성과 생산·유통 계획에 대해 서류 및 현장 평가를 실시하고 친환경농업 관련 전문가와 대학교수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심사로 사업대상자와 사업비를 최종 확정했다.

사업 대상자는 앞으로 지역의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와 협력해 생산은 물론 친환경농업 가공·유통 시설 인프라를 확대하게 된다. 전남도는 2013년부터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 올해까지 총 39개소(생산시설 6개, 가공시설 23개, 유통시설 9개, 교육장 1개)에 203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유덕규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유기농산물 생산 확대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선호하는 친환경 과수, 채소 등 다양한 품목 공급을 위해 친환경농산물 생산·가공·유통 생산비 절감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21년 말 기준 전남지역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유기농·무농약)은 전국의 54%, 유기농산물은 전국의 64%를 차지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신청

道, 3년간 월 최대 15만원…다음달 5일까지 읍면동서 접수

전남도가 무주택 신혼부부·다자녀가정의 주택 마련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2년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대상자를 10월 5일까지 모집한다.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은 전남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2자녀 이상인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주택 구입 대출이자 납부액을 36개월간 월 최대 15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가구 구성원 모두 전남에 주소를 둔 도민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지원 대상 상품의 대출심사를 통과한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가정이다.

신청 자격은 대출심사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 혼인신고를 신혼부부다. /윤현석 기자 chadol@